

# 레슬리 알렌 박사, 에스겔, 강의 20, 이스라엘의 안보가

## 시험받다, 에스겔 38:1-39:29

© 2024 레슬리 앨런과 테드 힐데브란트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레슬리 알렌 박사(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6부, 세션 20, 이스라엘의 안보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38:1-39:29.

이제 우리는 에스겔서 6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은 38절과 39절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그 안전이 시험대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38장이 소개되고 39장과 함께 처음에 일반적인 공식에 따라 별도의 메시지로 소개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39장에서는 반복되지 않으므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이 메시지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기 단계에 책에 포함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부분이 선지자 에스겔 자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장이 중단처럼 읽히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번에 말했듯이 37장의 마지막 절은 주요 주제에 대한 일종의 신학적 요약으로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38장과 39장은 우리가 그 속편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둘째, 그 구절은 앞으로 도약하며, 우리는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지 한참 후에 40장에서 48장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겪으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8장과 39장의 기조는 보안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강조했던 부분에서 이 기조 연설을 선택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38과 39 자체 내에서 우리는 이 용어를 얻습니다. 이는 New RSV의 8절, 38:8에서 사용된 히브리어와 동일한 용어로, 그것은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평안히 사는 사람들, 즉 평안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14.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그 날에. 그리고 새로운 RSV가 두 번역 사이를 오가며 영어 독자들이 핵심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반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히브리 문학에서 주로 말해야 할 내용, 독자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9절과 6절에서 우리는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39장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자기 땅에 평안히 살 때, 26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대답을 제공합니다.

보안이 유지되나요? 그리고 이 장이 하는 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관철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안전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장들을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의 어느 부분에서 안전을 강조했습니까? 또, 계속해서 발생하는 키워드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리고 그 대답은 34장에 있습니다. 앞부분인 34장에는 에스겔이 봉사의 후반부에 전하는 특권을 누린 긍정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34절 25-28절에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새로운 RSV에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번 발생합니다. 34장 25절에 보면 숲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8절에서 그것을 얻었지만 새로운 RSV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의 복귀와 관련된 그 약속을 우리는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안 증거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보안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여러분은 34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38장과 39장이 보안에 관한 34장에 대한 일종의 논평이라면, 여러분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으로 돌아온 후의 생명이 왜 34장 직후에 38장과 39장을 따르지 않았느냐? 일종의 연속인 것처럼 말하지만, 둘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아마도 34장부터 37장까지의 원활한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4장 뒤에 38장과 39장을 넣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이 장에 올 때 34장이 매우 염두에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37.25를 고려하여 두 번째로 좋은 장소는 여기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장 25절에는 그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섹션이 해당 진술 뒤에 배치되어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침략과 공격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멸망당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강조를 보면 그것은 망명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반영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과 34장에서 보안에 대해 강조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안전은 그들이 가진 마지막 것, 포로 이전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국가적 적에 의해 고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유배자들의 마음에는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경, 이 장 뒤에 숨겨진 배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한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적의 침공. 그들은 한때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만약에... 그래서 추방자들 사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지자는 포로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걱정을 목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보안 테스트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치르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에 대한 약속이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장은 북쪽에서 오는 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망명자들에게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적이 올 것이라고 자주 예언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온 적에게 이름과 국적을 부여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러나 그 전에 그는 그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에게 북쪽에서 오는 대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올 것이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올 것입니다. 사실상 바빌로니아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을 대체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구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에는 초기에 다섯 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과 4장에서, 6절에서 두 번, 그리고 10절에서.

그리고 이 현재의 시나리오는 예레미야에게서 북쪽의 적에 대한 동일한 무서운 생각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38절과 39절의 특정 구절을 샘플링해 보면 그 언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끝 부분은 북쪽의 가장 먼 곳에서 다시 예레미야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38, 15년에는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이 여러분과 함께 나왔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들의 가신들의 제국 파견대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39장 2절에서 우리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북쪽 끝에서 이끌어 내어 이스라엘 산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악몽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재검토되었으며,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환난과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북쪽에서 오는 적에 대한 무서운 개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 부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우리는 미래의 적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의 왕 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곱(Gog)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절에서는, 필멸의 존재여, 얼굴을 향하고 마곡 땅의 곱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곱은 왕의 이름이 되고, 백성의 이름은 마곡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섹과 두발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메섹과 두발은 소아시아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2장과 26장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한때는 전능했지만 더 이상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마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곡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소아시아 서부에 있던 리디아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7세기 전반에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름으로 연상되는 과거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 온 새로운 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히틀러나 새로운 스탈린에 대해 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자는 소아시아의 넓은 지역, 즉 현대 터키의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 새로운 적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이 늙은 왕. 그러나 새롭고 무서운 미래를 엿보기 시작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이전 시대에 대한 많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3절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소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이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안심이 됩니다.

39절 1절에도 같은 말이 있느니라. 메섹과 두발의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희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될 것 같지만 다행히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동맹자입니다. 그리고 곡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곡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진노의 도구가 되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침략을 연상시키는 끔찍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계십니다.

이것은 놀라울 정도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적이 하나님의 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38장, 4장, 5장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와 동맹국 또는 용병을 묘사합니다.

아, 이거 정말 무섭네요. 네 모든 군대와 말과 마병이 다 갑옷을 입었고 큰 무리가 다 방패와 방패를 찬 칼을 가졌고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붓도 그들과 함께하고 다 방패와 투구를 썼느니라 고멜 그의 모든 군대 곧 북방 끝의 벤도갈마와 그 모든 군대와 많은 민족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또 다시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대규모 적군 부대는 하나님을 주제로 하는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군대와 모든 무기와 너희의 모든 동맹자와 용병을 데리고 너희를 데리고 나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원수시며 이 끔찍하고 엄청난게 강한 군대가 오는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배적인 주체이십니다.

그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글썄,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이 두렵고 안심이 되는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곡과 그의 군대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머! 너희와 너희 주위에 모인 모든 무리는 준비하고 준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두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들, 이 긍정적인 장들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확신이 있습니다.

공격할 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여러 날 후에 너희는 소집될 것이다. 말년에 네가 전쟁에서 회복된 땅,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으로 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땅을 치리라.

그 백성은 열방에서 끌려나와 지금 안전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안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살며 세월이 흘러간다는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36장과 37장에서 모두 성취됩니다.

그것은 백성이 땅으로 돌아갈 때 40장에서 48장까지의 약속의 배열을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런 침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 측면에서 38장과 39장은 약속이 성취된 연대적 측면에서 36장과 37장 이후에 속하는 것처럼 40장부터 48장 이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된 안전과 침략의 전망 사이에 명백한 긴장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기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섭네요.

유배자들은 이때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거나 벌하신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외세의 침략을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무기로 언급했던 지난번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일입니다.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는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에는 제가 이전에 아마도 여러 번 언급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고대 선지자들의 모든 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아 앗수르야 내 진노의 지팡이여 내가 그를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게 보내며 내 진노의 백성에게 명 하느니라 . 그리고



그것이 유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약탈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니다. 의인화 된 아시리아는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멸절하려는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앗수르에게 요구하신 것과 앗수르가 너무 멀리 요구한 것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장 12절의 이사야 메시지의 두 번째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앗수르 왕의 교만과 교만을 벌하실 것입니다. 내 손의 힘으로 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이지만 앗수르는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앗수르가 유다에 대한 끔찍한 일을 마치면, 앗수르가 차례로 징벌을 받을 차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형벌이요, 그 다음에는 앗수르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에 구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전 선지자들은 그들의 모든 작업을 통해 이 두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절은 이사야 10장에 있습니다.

38장은 사실 10절에서 언급된 10장에서 한 가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그 날에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꾀하리라. 그래서 곡과 그의 군대는 새로운 전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곡의 마음에 떠오를 것이며 그것은 악한 계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서 앗수르의 초기 명령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아시리아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괴, 절대적인 파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곡이 관여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곡의 생각이 있지만 처음부터 확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악한 계획으로 심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비추어 볼 때, 앗수르가 차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사야서 10장의 두 번째 단계를 회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악한 계획은 곡 자신과 관련하여 나쁜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10장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곡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유사점이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곡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악한 계획에 대한 비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앗시리아와 비슷한 종류의 곡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곡은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사야 10장에서 앗수르에 대한 파멸이 약속된 것처럼 곡과 그의 큰 군대가 침공할 때 심판이 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생들아,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 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이 평안히 사는 날에 네가 일어나서 네 곳에서 북쪽 끝에서 나오리라. 그러므로 첫 번째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이 14절이 시작되는 방식이며, 우리는 이제 곡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에스겔과 아마도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라진 것이 비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절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악한 계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네가 네 곳 곧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 막강한 군대와 함께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반대가 너무 많은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적에 맞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곡이 땅을 덮는 구름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맹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백성 이스라엘인 그 언약 공식의 일부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이 계속되면서도 약간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내 땅으로 데려가겠다. 나의 땅. 그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 긴장, 긴장이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와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훌륭한 종류의 실험, 잘못될 수 있는 실험에 대한 생각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너무 많아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전망은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방인으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서, 그것은 앞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되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에 대해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곡의 침략은 하나님이 무례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며, 이 거대한 군대의 침략을 받는 자신의 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은 아주 강력한 신이 아니시죠? 글썄요, 여기서 암시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곡을 패배시키실 것이라는 힌트입니다. 그리고 곡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반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자 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그의 땅에서 승리하는 편에 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진행하면서 펼쳐질 것입니다. 17절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생되고 있는 전반적인 묘사에서 일종의 제쳐두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말한 바 그가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여 내가 너로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흥미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쪽에서 다시 한 번 쳐들어오는 적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이전 침공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쪽의 적에 대하여 말할 때 사실의 관점에서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의미의 잔여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에는 여기와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쪽에서 오는 적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서 앗수르 사람을 꺾고 내 산에서 그를 발로 짓밟을 것이다. 이사야 14장과 25장.

그래서 아시리아인들이 침략했지만 그는 내 땅, 내 땅을 침략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역사적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텍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언이며 사실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31절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통곡하라, 문이여! 오 도시여, 외쳐라! 두려움에 녹아라! 연기가 북쪽에서 나오니  
그 대열에 낙오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시대에 북쪽에서 온 적은  
앗시리아였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언이 이러한 역사적 성취에서 반드시 소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시대와 연관되어 포착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옛날에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를 가리켜  
말한 그 사람이니라 그들이 그 때에 너희로 그들을 치리라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성취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성취가 있습니다.  
1431년에 북쪽에서 온 대적에 대한 옛 예언의 예상치 못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앗시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땅을 침공하여 그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이러한 침략이 있었지만 앗수르의 경우에는 그러한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오는 원수, 여기 그는 다시 곡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시는 그 날에 내가  
진노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내가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많은 민족의  
눈에 나를 알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곡에 대한 결정적인  
정복이 일어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두려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개입하실  
원수라는 확신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곡은 비록 강력했지만 정복당할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19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내가 투기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말미암아 말하노니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진동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곡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와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신호입니다. 비록 이 소식이 침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끔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지진이 있을 것이고, 곡의 군대 사이에 자멸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과 폭풍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대적,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훌륭하다'가 핵심 용어입니다. 15절에 보면 곡의 큰 군대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큰 무리, 강한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함, 위대함을 가지고 위대함을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큰 적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자체는 사실상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39장에 이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3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요약이고 이어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3절, 내가 네 활을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이 네 오른손에서 떨어지게 하리니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각종 맹금과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너는 들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면 내가 마곡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본토 백성과 소아시아 서해안의 해안 지대에 평안히 사는 자들에게 불을 보내리니 그들이 알리라 나는 주님이다. 해안 지역에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 표현에 유의하십시오.

상황은 역전되어 안전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침략하려던 곡은 전쟁이 다시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화재와 파괴의 희생자들 자신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은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두 용어를 혼동하십시오. 그들은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곡뿐만 아니라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마곡과 맞서 싸울 것이며, 상황은 역전될 것이며 대신 소아시아의 안전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미 38절에서 여러 번 나타난 거룩함의 개념으로 돌아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리라.

나는 더 이상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 그 민족은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배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불러내셔야 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이름에 속한 그 위대한 거룩함과 능력에 대한 감각을 다시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큰 능력을 나타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침략할 때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8절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38장 17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일종의 제쳐두고, 일종의 신학적인 제쳐두고 큰 규모의 예언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루었느니라 내가 말한 날이 이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이 앗시리아인과 바벨론인을 통해 닥칠 재앙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앗시리아인이 패배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인을 정복 하고 그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미래의 우발성의 요소가 있으며, 이 본문은 반드시 그 자체의 역사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취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르렀고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말한 날이 이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38장 17절에서 곡의 공격을 새롭게 성취된 예언으로 환영한 것처럼, 여기서도 곡의 패배는 이전 예언의 성취로 환영 받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해석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선지자들에게는 정경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9장 8절에는 그러한 해석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이는 38장 17절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곡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글썄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판사 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 이후에 일소작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나무 무기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무기에 불을 피워 사르리라. 방패와 방패, 활과 화살, 창과 창 등 모두 나무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로 나무로 불을 피워 7년 동안 지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가져오거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그들이 약탈하고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장작을 모으러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을 수집하고, 나무 부분을 부수고, 그들의 마을에 다시 보관할 것입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장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져온 모든 큰 무기에 대한 아이러니한 대우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이 저녁을 요리할 때 그것들은 결국 당신의 난로에 장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 작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는 종종 다른 성구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불타는 무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구약성서에 이 말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46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시온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시온에 유익이 될 전통을 구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곳은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이다.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시니 그 성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에스겔이 시온의 전통과 시온의 노래가 말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전에 보았습니다. 나는 포로들 가운데 있는 설교자들이 시온의 노래를 매우 열렬히 설교하며,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말하리라고 상상 합니다. 네, 하느님, 다 괜찮을 거예요.

이건 우리 미래 역사의 딸꾹질일 뿐이야, 이 유배자. 우리는 곧 집에 갈 예정입니다. 평화의 선지자들과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결국에는 유배의 심판 이후, 오랜 유배의 심판 이후에 밝혀진 대로 이 시온 전통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에서 말한 내용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 46편 9절에는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방패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로 방패를 태운다. 그래서 이 방패의 전면에는 금속 덮개가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에 나오는 그 소식은 이 곡의 상황에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환영받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온 전통을 회상하고 되찾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매우 늦었습니다.

따라서 불타는 무기는 독자들에게 종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시편 46편과 49편을 생각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46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이 일은 곡의 침략에 대한 이 끔찍하고 참으로 끔찍한 경험을 통해 다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46편에서는 말했습니다. 곡이 올 것이라는 전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옛 시온신학이 결국 다시 실현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장에서 우리는 38장과 39장이 포로들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더 많이 소탕하는 일이 나옵니다.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사실 시체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묻어야 합니다. 그래서 땅을 깨끗하게 하려면 땅을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세 번 우리는 땅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12절 끝. 이스라엘 족속은 곡과 그의 동맹자들의 군대에서 나온 이들 군인들을 장사하는 데 7개월을 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일곱 달 동안 그들을 장사해야 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땅을 정결케 하려거든 땅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 이 시체들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묘지가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시체는 이 묘지로 옮겨져 이 특별한 구역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실제로 민수기 19장에서는 시체가 부정하므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실제로 그 백성의 패배에 대한 생각에서 계속됩니다.

오른쪽. 그리고 군인들이 죽어가는 결과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각종 새와 들짐승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는 잔치까지 너희는 모여라 오라 각처에서 모여라 이스라엘 산 위에서 큰 희생의 잔치를 베풀어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니라. 네가 용사들의 살을 먹으며 땅의 통치자들의 피를 마시리라.

너는 배부르도록 기름을 먹고 취하기까지 피를 마시라. 내 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전사와 각종 군사로 배부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자, 이 부분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묻혀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죽은 군인들이 매장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4절은 정말로 끝 부분에 속하며, 17절부터 20절까지는 4절 끝 부분에 있는 말씀에 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각종 맹금류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잡아먹힐 동물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남은 것은 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도 살도 없었습니다. 묻힐 뼈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 전체 순서에 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논리적 재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금류와 야생 동물들이 와서 이 시체를 먹어치운다는 언급을 듣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랬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끝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적 논평이 되겠지만, 이것이 서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클라이맥스는 새와 동물이 시체 위로 급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묘지와 이 시체나 뼈가 이 특별한 묘지로 운반되는 것에 대해 좀 더 차분한 결말로 끝났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내가 신학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논평에 이르렀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나는 열국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모든 열방은 내가 행한 심판과 그들 위에 내 손을 얹은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므로 곡 사건 전체는 정말로 그 사건의 핵심이거나 그 중 한 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또 다른 큰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실제로 화재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화기를 가지고 계시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을 끄십니다. 사실, 꽤 끔찍할 것처럼 보였지만, 터져 파괴를 가져올 불. 그러나 그 안전함과 함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사건에 의해 증진됩니다.

22 그 날 부터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나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음을 알리라 이제 일반적인 요약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23절부터 29절까지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끝부분과 37장 끝부분에도 그런 요약이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구원의 메시지, 곧 다가올 구원의 요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8, 25~26, 37, 25~28에는 작은 나침반 안에 쌓여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넓은 요약이 있으며 요약된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온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에스겔의 예언에 대한 더 완전한 요약이 있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음이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고 그들을 그들의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범법에 따라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구원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를 회복시키리니 이스라엘 온 족속을 긍휼히 여기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질투하리니 26년 만에 그들이 그 땅에 안전하게 살며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게 하였고 그 후에 자기들의 땅으로 모아 놓았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줄 때에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마지막 구절에 관해 내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고 에스겔서에서도 다시 사용하지 않는 몇 가지 새로운 어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자주 볼 수 있지만 사실 에스겔서에서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에스겔서에 정경적으로 추가된 성령의 영감에 의해 나중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신약 성경 25절에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였느니라.

NIV는 제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번역을 제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공감을 갖고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행간을 암묵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그들이 느끼는 슬픔과 굴욕에 대해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것을 넘어서고 싶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은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또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살 때에 그 수치와 나를 향하여 행한 모든 배반을 잊어버리리라 NRSV는 그들이 그들의 수치심을 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NIV는 그들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묻고 싶다. 새 RSV의 하단 여백에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또 다른 읽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를 거슬러 행한 모든 배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품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치심을 잊어버리라고 말하도록 본문을 약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치심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기억하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행해진 나쁜 일들을 기억해야 다시 그런 일에 빠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요약에 에스겔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주제에 대한 회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들의 수치심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은. 그래서 우리는 있습니다. 이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일종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끝까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에스겔 38장과 39장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시편 23편은 이를 더욱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이 두려워하는 포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40장부터 48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0장, 41장, 42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가르칠 때 Dr. Leslie Allen입니다. 이것은 6부, 세션 20, 이스라엘의 안보가 시험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38:1-39:29.